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23장 죄를 억제함에 대하여

『산상설교』 상권 제23장, 인쇄 306~318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29~30

> ❓ **마음속 죄까지 문제라면, 나는 그 죄를 실제로 어떻게 다뤄야 하나?**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앞 장에서 마태복음 5:27~30을 통해 예수님의 죄관을 다뤘다. 이 장에서는 29~30절만 다시 붙들고 “그렇다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묻는다. 그는 먼저 “오른 눈을 빼라”는 말씀을 바르게 읽는 법부터 정한다. 이 말씀은 몸을 훼손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죄의 원인이 되면 버리라는, 죄의 무서움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어서 죄를 다루는 원칙을 차례로 세운다. 죄의 성격을 십자가에서 깨달을 것,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맨 앞에 둘 것, 죄를 미워하고 연구할 것, 깨끗한 마음이라는 적극적 목표를 가질 것, 그리고 죄를 억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싸움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다. 동시에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기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약속이 함께 붙들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 절별 정리

📜 1. "오른 눈을 빼라" —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

로이드 존스는 29~30절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부터 묻는다. 흔한 해석이 하나 있다. 예수님이 “죄는 내 눈과 손 탓이라 깨끗한 마음은 불가능하다”는 반론을 미리 내다보고 비판하셨다는 것이다. 오른 눈을 빼도 왼 눈이 남아 같은 것을 본다. 그러니

않지만, 정확한 풀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본다. 그가 더 자연스럽다고 보는 해석은 따로 있다. 당시 사람들은 오른 눈과 오른손을 왼쪽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예수님은 이 대중적 생각을 일부러 골라 쓰셨다. 뜻은 이렇다. “네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너를 죄의 함정에 빠뜨린다면 내던지라.” 이 표현은 죄의 무서운 실체와 그 위험, 그리고 죄를 처리해야 할 절박함을 가르친다.

1. 몸을 자르라는 명령이 아니다
2. '오른' 눈·손 = 당시 가장 귀하게 여긴 것
3. 가장 소중한 것도 죄의 원인이면 버린다
4. 요점은 죄의 무서움과 처리의 긴급성
5.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오염이 문제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마태복음 5:27~28 > 27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죄가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임을 밝힌 앞 문맥
마태복음 5:29~30 > 29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소중한 지체라도 죄의 원인이면 버리라는 본문

📜 2. 첫째 원칙 — 죄의 성격과 결과를 깨달아라

로이드 존스는 성결과 성화가 없는 주된 원인을 죄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성화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서 찾는다.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을 말한다. 그는 교회사에서 도덕률 폐기론과 완전주의가 번진 비극도 같은 원인에서 나왔다고 본다. 죄를 하나의 세력으로, 우리 본성에 배어 있는 오염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람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악하다. 그래서 '죄'(sin,

죄다. 겟세마네의 피땀과 십자가 죽음을 낳은 것이 바로 우리 속의 죄다. 따라서 죄를 도덕적 목록으로 만들어 크고 작게 분류하는 습관은 위험하다. 그런 목록으로 보면 “나는 이런 일은 안 했다”며 점잖은 만족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에서 보아야 제대로 보인다.

1. 성결이 없는 원인은 잘못된 죄관이다
2. '죄'(본성)와 '죄들'(행위)을 구별하라
3.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이유가 죄다
4. 죄 목록 만들기는 자기만족을 낳는다
5. 십자가에서 죄의 참 색깔이 드러난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누가복음 22:44 >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의 피 같은 땀 — 죄가 그리스도께 가져온 고뇌
마태복음 5:28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죄는 행위만이 아니라 생각과 욕망이라는 예수님의 강조

“성결로 향하는 지름길은 그분의 고뇌와 고통을 생각하는 길입니다.”

📜 3. 둘째 원칙 — 영혼과 그 영원한 운명이 먼저다

예수님은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신다. 로이드 존스는 이 반복을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강조로 읽는다. 이 세상에는 그 자체로 좋고 옳고 유익한 것이 많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면 한쪽으로 치워 두어야 한다. 그는 누가복음 14:26의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라”는 더 강한 말씀도 같은 원리로 읽는다. 이 말씀은 가족을

뜻이다. 문제는 사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못 쓰고 잘못된 자리에 놓는 데 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하지만 우리는 깨끗하지 않아서 깨끗한 것조차 더럽힌다. 그러므로 영혼의 운명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 대가로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하거나 남보다 잘되지 못할 수도 있다.

1. 반복은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좋은 것도 함정이 되면 제쳐 둔다
3.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다
4. 문제는 사물보다 우리의 오용이다
5. 승진을 놓쳐도 영혼이 먼저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누가복음 14:26 >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아무리 소중해도 제쳐 두라
마태복음 5:44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 14:26이 문자적 증오가 아님을 보여 줌
디도서 1:15 >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깨끗한 자에게는 다 깨끗하지만, 우리가 더러워 좋은 것도 더럽힌다
마태복음 16:26 >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인가 — 우선순위의 기준
마태복음 10:28 >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의 영혼과 그 영원한 운명을 다른 모든 것에 앞서 놓으십시오.”

📜 4. 셋째·넷째 원칙 — 죄를 미워하고, 깨끗한 마음을 목표로 삼아라

셋째 원칙은 죄를 미워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안의 죄를 멸하려고 힘쓰는 것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는 말씀처럼 죄를 미워하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죄를 연구하고 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로이드 존스는 당시 교회가 이 일을 소홀히 한다고 지적하며 청교도와 대조한다. 청교도는 죄를 분석하고 드러내다가 '죄의 전문가'라는 조롱까지 받았지만, 그것이 성결의 길이었다. 넷째 원칙은 이상적인 해결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팔복의 “마음이 청결한 자”로 돌아간다. 바리새인처럼 “일정 기간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성결은 참된 가르침이 아니다. 시기·질투·악의를 모르고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이 목표다. 그는 '복음적'이라 불리기를 좋아하는 자기 진영도 겨눈다(번역본 표기는 '전도자'). 자유주의자나 현대주의자와 다른 정통이라는 이유로 만족하고 앉아 있는 것은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증거다. 사람은 겉으로 완벽하게 존경받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1. 죄를 미워하도록 자신을 훈련하라
2. 청교도는 죄를 분석해 거룩해졌다
3. 성결의 표준은 '안 하기'가 아니다
4. 목표는 사랑으로 가득한 청결한 마음
5. 정통이라는 만족은 마음을 모르는 것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시편 97:10 >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라 — 셋째 원칙의 근거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5. 다섯째 원칙 — 죄를 억제함: 거짓 견해와 바른 견해

마지막 큰 원칙은 죄를 억제하는 것, 곧 죄를 죽이는 일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 주제를 더 공부하려는 사람에게 청교도 존 오웬의 『죄를 억제함에 대하여』를 권한다. 이 주제에는 두 견해가 있다. 거짓 견해는 손을 문자 그대로 찍어 버려야 한다고 본다. 이 견해는 죄가 몸 안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몸을 가혹하게 다룬다. 초대교회에는 실제로 손을 끊고 산상설교를 지켰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왼편 뺨을 돌려대라”(마태복음 5:39)도 같은 방식으로 문자적, 비이성적으로 읽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왼 눈과 왼손이 남아 있었고, 그것도 죄를 지었다. 독신이 성화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같은 부류다. 자연을 거스르는 삶을 요구하는 가르침은 신약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가짜다. 바른 견해는 로마서 8:13과 고린도전서 9:27에 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찍어 내버리라”도 이 원칙과 같다.

1. 존 오웬의 고전을 권한다
2. 문자적 절단은 죄가 몸에 있다는 착각
3. 초대교회 일부는 실제로 손을 끊었다
4. 독신·금욕주의도 같은 부류의 오류
5. 바른 길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마태복음 5: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문자주의자들이 기계적으로 적용한 또 다른 구절의 예
로마서 8:13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 바른 억제의 기본 원칙

장절	이 구절의 역할
고린도전서 9:27 >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킴 — 몸을 제어하는 본

📜 6. 구체적 실천 — 불 곁에 기름을 가져가지 말라

로이드 존스는 억제의 원칙을 생활 속으로 끌어내린다. 첫째,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속에는 불이 있으니 그 가까이 기름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정욕을 부추기는 신문 기사, 소설, 라디오 프로그램, TV 영화를 구체적으로 든다. 유혹의 근원이 바로 그런 데 있어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누군가 “교육적이고 훌륭한 작가의 책인데 모르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반론할 수 있다. 그의 답은 분명하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해가 된다면 영혼을 위해 무식자가 되는 편이 낫다. 재치 있지만 정욕을 부추기는 이야기와 농담도 거절해야 한다. 그 때문에 상대가 화를 내도 그것은 그들의 도덕 수준 문제다. 사귀는 사람도 조심하고, 모든 형태의 악을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러면 병적으로 고지식해져서 더 비참해지지 않느냐”는 반론에 답한다. 병적인 상태는 늘 자기 상태와 자기 성공에만 관심을 둔다.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데 관심을 둔다. 자기 영적 맥박과 온도를 재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그분을 위해 이 일을 하면 병적인 상태를 피할 수 있다.

1. 내 안의 불에 기름을 붓지 말라
2. 해로운 읽을거리·방송을 끊으라
3. 영혼에 해롭다면 무식자가 낫다
4. 더러운 농담은 미움받아도 거절하라
5. 병적 집착과 성결은 시선 방향이 다르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로마서 13:14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에베소서 5:4 >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 더러운 농담을 피할 근거
데살로니가전서 5:22 >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 형태를 가리지 말 것
골로새서 3:5 >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 “내 지체를 죽여야 한다”의 배경

“여러분 속에는 불이 있습니다.”

📜 7. 깨어 기도하라 — 십자가의 대가와 성령의 능력

다음 원칙은 육신을 용의주도하게 억제하는 것, 곧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바울도 자기 몸을 쳐야 했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다. 이 일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로이드 존스는 강하게 말한다. 어떤 체험을 했든,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하든, 충동적인 기사를 읽으면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된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큰 동기는 우리를 구하는 데 치른 대가를 다시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신 목적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와 모든 불법에서 구해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데 있었다. 그 사랑은 아이작 와츠의 찬송처럼 “나의 영혼과 생명과 모든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그는 성령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실천해야 하지만, 힘은 성령만 주신다. 빌립보서 2:12~13처럼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약속, 이 두 면이 모두 필요하다. 내 힘만으로 육신을 죽이려 하면 거짓 성화가 나온다. 죄의 세력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 곧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흠 없이 그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일하신다.

1. 깨어 기도하라 — 저절로 되지 않는다

3. 가장 큰 동기는 십자가의 대가

4. 자력 억제는 거짓 성화를 낳는다

5. 우리가 행하되 성령이 힘을 주신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마태복음 26:41 >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기도하라 — 용의주도한 억제의 방법
갈라디아서 1:4 >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 자기를 주심 — 십자가의 목적
디도서 2:14 >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백성으로 삼으심
에베소서 1:4 >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로마서 8:13 >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라 — 성령의 절대 필요
빌립보서 2:12~13 > 12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약속, 두 면
에베소서 5:27 >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점과 흠과 주름 없이 서게 하실 최종 목표

📖 용어

실족
걸려 넘어진다는 뜻으로, 무언가가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

성화
구원받은 사람이 평생에 걸쳐 실제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다.

죄와 죄들
'죄'는 타락 이후 본성에 배어 있는 악한 상태이고, '죄들'은 그 상태에서 나오는 개별 행위다.

죄의 오염
죄가 행위의 책임(죄책)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본성 자체를 더럽혀 놓은 상태다.

죄를 억제함(죽임)
성령의 힘으로 내 안의 죄의 움직임을 꺾고 죽이는 일이다. 영어로 mortification이라 한다.

도덕률 폐기론(반율법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완전주의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청교도
16~17세기 영국에서 성경대로 교회와 삶을 개혁하려 한 신자들이다. 죄와 성화를 깊이 연구했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오른 눈을 빼라”는 몸을 해치라는 말이 아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죄의 원인이면 버리라는, 죄의 심각함에 대한 경고다.
- 죄는 행위의 목록이 아니라 본성의 오염이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히 보인다.
-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맨 앞에 두고, 죄를 미워하고 연구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청결한 마음을 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 죄를 억제한다는 것은 몸을 학대하는 금욕이 아니다. 유혹의 통로를 끊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 우리는 직접 행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이 두 면이 함께할 때 참된 성화가 이루어진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